κόκκος

코코스는 '한 알의 밀'을 의미합니다



발행인 강우정 편집주간 이강동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02-950-5401 www.bible.ac.kr 제 35 대 예음 총학생회를 이끌고 나갈 김대진 회장 (오른쪽) 과 전소희 부회장 (관련기사 5 면)

2018 DEC

12

VOL, 201

우리대학,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 ' 평가에서 20 위 2017년 46 위에서 20 위로 26 계단 뛰어 올라

우리대학이 '2018 대한민국 사립종합대학 사회책임지수' 에서 20 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2017년도) 조사에서 46 위였는데 한 해 동안 26 계단을 뛰어 오른 셈이다.

이 평가는 대학이 사회적 기관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노동 · 인권 · 학생 · 지역 사회 · 환경 · 공정성 · 거버넌스 등 7 개 부문을 종합해 대학이 소속된 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느냐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줄 세우기식' 대학평가의 한계를 딛고 새로운 각도에서 대학을 본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 CSR 연구소(소장 안치용)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등이 함께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은 국공립대학을 제외한 국내 151 개 4 년제 대학이다.

한국성서대학교는 사회책임지수 점수가 노동부문은 D, 인권 A+, 학생 A, 지역사회 B-, 환경 A-, 공정성 B, 거버넌스 C+ 였고 1,000 점 만점에 636.52 점을 받았다. 1 위는 연세대학교 (738.54) 2 위 한국기술대학교 (723.35), 한림대, 포항공대, 성균관, 가톨릭대, 한양대, 금강대, 한국외대, 서강대 등이 10 위권 안에 포진했다. 신학대학 및 개신교 특색이 강한 대학으로는 한국성서대가 유일하게 20 위 안에 들었고 한세대 (25위) 서울신대 (30위) 나사렛대 (39위) 등 3 개교가 40위 안에 들었다.

우리대학은 인권, 학생, 환경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인권부문에서는 최상 위권에 위치했다. 우리대학을 포함 상위권 대학은 배점이 300점에 달하는 학생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 대학 주요 구성원인 학생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줬다. 반면 노동, 거버넌스 부문에서 하위 성적을 받았는데 노동부문의 부진한 성적은 세부지표의하나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대학사회책임지수 평가는 졸업생취업률, 교수의 논문 수 등 기존 성과위주 측정을 배제하고 대학의 사회책임 성과만 들여다 보는 본질적으로 다른 대학 평가이다. 이런 형태가 갖는 평가의 중요성은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대학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동시에 대학이 속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없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책임

미니설교

사랑은 알면서도 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김웅기 교수 (성서학과)



고린도전서 13 장은 사랑 장으로 알려져 있다. 12 절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는 표현이 나온다. 천국가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아시는가? 나도 모르는 나를 이실 정도로 온전히 아신다. 그럴 정도에 천국가면 예수님을 잘 알게될 것이다. 이 표현을 묵상하다가 생각이들었다."이건 정말 놀랍다. 나를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나? 나의 모든 부정과 부족과 불의와 불평을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기능한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가 보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한다. "알면 사랑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3 장 12 절은 말한다." 사랑은 알면서도 하는 것이라고." 사랑이란 외적으로 끌리는 무엇을 가진 사람을 향해 가지게 되는 불타는 감정이 아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알면서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감사와 감격에 젖을 것은, 천국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유가 그런 사랑을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뵈옵기 때문일 것이다.

2018 년도「대학자체평가」기준점 충족

2015 년 -17 년 3 개년 실적, 36 개 지표 모두 합격점

평가감사실 (실장 김인화)이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2018년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자체평가보고서」는 우리대학이 평가 준거인 6개 필수지표와 30개 일반지표 모두기준점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6 개의 필수지표는 전임교원확보율, 장학금지급율, 교육비환원율, 교사확보율,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정원내 신입생충원율이며 30 개의 일반지표는 대학경영, 교육, 교직원,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 5 개 영역에서 각각 6 개씩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015 년도 ~ 2017 년도까지 3 개년에 대한 실적이 평가대상이다.

우리대학은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2018 년도에 시행된 핵심역량과 전공능력 개발 및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과 CQI 도입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학습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고, 교양교육과정 구성에서 일부 핵심역량에교과목 구성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또한, 교수의 연구년 운영실적도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자체평가를 해야 한다. 자체평가는 내년에 받을 대학기관인증평가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 필수지표, 일반지표 가운데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기관인증을 받지 못하며, 특히 6개의 필수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관인증평가를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우리대학이 기준점을 충족하기는 하였으나 다소 불안정한 몇몇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김인화 평기감사실장은 "대학평가는 우리의 아픈 부분을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한 대학을 만들 수 있는 정기검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균형 잡힌 대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4 학년 주관예배, '주님 붙잡는 용기 가져야' 진솔한 간증, '환난은 주님이 기다리는 신호'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진행된 4학년 주관예배는 교수, 목사님들이 인도하는 평소 채플과는 또 다른 깊은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들이 행한 간증(성서학과 이외의학과)은 극심한 고난과 역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발견하는 인생역전의 드라마였다. 한편 성서학과학우들이 담당한 설교는 정형화된 설교의 틀을 벗어나 자신이 믿는 복음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날 것으로 전했다.

박정하 (성서학과) 학우는 'No day, But Today'(막 5:25~34) 제목으로 말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의 간절한 소망은 병의 치유다. 여인은 전능자 예수에게 강한 믿음과 용기로 다가갔다. 그는 바로 그날 실천해 나음을 입었다. 우리에게 기회는 지금 (Today)이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삶의 등불 되신 주님 붙잡는 용기를 갖자"고 강조했다.

이환의 (간호학과) 학우는 어린 시절 풍족한 삶이 IMF 격랑으로 180도 뒤바뀐 이픈 상처를 담담히 드러냈다. 그는 "이픔이 큰 만큼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다. 환난은 나를 기다린 주님의 신호다.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변 아픈 이웃의 마음과 몸을 섬기고 치료 하겠다"고 간증하였다.

이번 주관예배는 윤현묵 학우의 설교를 시작으로 각각 15 명의 설교 , 간증 , 기도자가 이끌었다 .



▲ 박정하 학우가 'No day, But Today'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복음관, 갈멜관 승강기 교체 모금 캠페인

'승강기 교체 365 천사 모집 ' T/F 팀 조직

복음관과 갈멜관 노후승강기 교체를 위한 모금 캠페인이 '승강기 교체 365 천사 모집'의 이름으로 T/F 팀을 조직하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이번 프로젝트의 공동위원장은 김창원 법인 이사장, 김희태 총동문회장, 현희철 한국성서선교회 회장, 김대진 신임 총학회장, 강우정 총장 등 5 인을 추대하고 최육렬 평생교육원 원장이 총괄위원장으로 실무전반을 이끈다.

강우정 총장은 승강기 문제와 관련해, 22 일 장애우 간담회에서 복음관 및 갈멜관 승 강기를 교체할 것이라고 공표하며 내년 2 학기 개강 전까지 무조건 완공. 시기까지 확정하는 결연한 모습을 보였다. 잦은 고장으로 안전이 우려된 상황에서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출이다. 그동안 학우들은 총학 간담회 등에서 대책마련을 호소해 왔다.

현재 교체가 예정된 2 대의 노후 승강기는 운행 12 년째로 교체주기에 이미 접어들었다. 오랜 연식과 부품노후화가 겹쳐 숱한 고장을 불러왔다. 실제로 운행 중 갑자기 멈춰 갇히는 경우도 수차례 발생할 만큼 심각한 상태다.

T/F 팀은 이번 승강기 2 대 교체에 최소 1 억 7 천만 원을 책정하고 있다. 비용 마련을 위해 법인, 국내외 동문, 성서선교회, 교수 및 직원, 부설기관, 외부 후원자, 학우들까지 범성서인공동체가 함께 동참하는 전략을 마련 중이다. 사업일정과 모금 및 홍보전략 등은 실무진에서 수시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승강기 모금 캠페인 취지에 벌써부터 후원을 전해 온 6 명의 천사가 나타났다. 최육렬 총괄위원장은 "형편과 뜻을 아시고 귀한 등불을 일찍 밝혀준 고마운 천사들이다. 우리의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고 초창기 엄청난 힘과 용기가 됐다"며 거듭 감사를 드렸다.

▲ 강우정. 강진(총장 부부) 1 천만원
▲ 이인영(본교 한국어교육원 부원장) 1 천만원
▲ 이정훈(평생교육원 원우) 3 백 80 만원
▲ 이호우(애틀란타 언더우드대학 부총장, 전 본교 대학원장) 1 백만원
▲ 김은환(상록교회 담임) 70 만원

강우정 총장 약속 , 장애학생 – 총장초청 간담회서

50 만원

"복음관, 갈멜관 E/L 꼭 교체하겠다"

▲ 오계순 권사 (한민교회)

'2018 학년도 장애학생 총장초청 간담회'에서 강우정 총장은 "늦어도 2019 학년도 2학기 시작전까지 복음관과 갈멜관 엘리베이터를 꼭 교체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총장은 이어 "하나님께서 장애우를 이 학교에 보내신 이유는 비장애학우들에게 장애우들이 보는 세상,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장애는 특권이 아니다. 자신이 해야할 일을 충실히 해야 할 의무는 비장애학우와 하나도 다름이 없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간담회는 11월 22일 밀알관 2층 회의실에서 김형미(장애학생지원센터장, 영보학과)교수 사회로 진행되었다

장애우들은 이날 갈멜관/복음관 엘리베이터 문제 외에도 갈멜관에 장애우 화장실설치, 장애우 휴게실 시설 개선, 사물함 및 커텐 설치도 건의하였다. 엘리베이터 탑승시 비장애학우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장애우의 휠체어를 피하여 먼저 E/L의 탑승하는 얌체족, 장애우 화장실에서 사워한 후 질퍽한 바닥을 정리하지 않고 나오는 매너 없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안건이 건의 되었는데 김형미 교수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검토과정을 거쳐 의견반영이 이뤄지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20 여명 (도우미 포함)의 학우가 참석했다.



▲ 간담회장에서 도우미 신범철 (컴소 2) 학우가 발언하고 있다 .

제 35 대 총학

회장 김대진 , 부회장 전소희 선출

제 35 대 총학생회 선거 결과 신임 총학생회장에 김대진(성서3), 부회장에 전소희(성서3) 가 선출되었다(사진 표지에). 김대진, 전소희 후보는 400 표(56.6%)를 받아 당선이 확정되었다.

김대진 회장은 "학우 여러분과 성숙한 캠퍼스 문화를 누리며 약한 형제 자매를 섬기 겠다. 작은 학교이지만 강한 우리임을 고백하고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정직하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써 노력할 것임을 소감으로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35 대 총학회는 2019 학년도부터 '예음'총학명을 사용해 갈 예정이다

이번 총학선거는 총 유권자 995 명중 707 명 (71.1%) 이 투표에 참여했다.

학부모 기도회, 신임회장 장인순 씨 선출



▲ 신인회장 장인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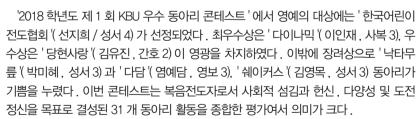
2018 년도 마지막 학부모기도회가 29일 복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2019년 학부모기도회를 이끌게 될 신임 회장에 장인순(임주영 성서 4), 부회장신영옥(조은경 영보 4. 조은진 1)학부모를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신임 장인순 회장은 "부족한 사람이 귀한 중책을 맡았다. 자녀들의 전공실력과 신앙 성숙을 간절히 바라는 어머니 심정으로 기도하며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 한 해 학부모기도회를 헌신적으로 섬겨온 김영선 회장은 "학부모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시 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대학 되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계속 섬기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앞서 학부모 기도회가 열려 김은호 부총장이 말씀을 전하였다. 이어서 나라를 위한 기도, 학교의 발전 및 학우들의 학문과 신앙의 성숙 및 가족의 건강 등을 요청하는 통성기도로 올해 마지막 기도회를 마쳤다.

제 1 회 KBU 우수 동아리 콘테스트

대상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동아리



수상식은 22 일 총장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콘테스트 심사는 내적 및 외적 역량평가 각 35% 와 사회 공헌도 30%를 기준하였으며 총 13 개 지표를 근거로 진행되었다.

대상을 차지한 '한국어린이전도협회'는 여름방학기간 중 충주에서 2 박 3 일동안 어린이 성경캠프를 주관하는 열정을 보였다. 학교 주변 및 북서울 꿈의 숲 등에서도 24명의 학우들이 프로그램 진행과 풍성아트교실 등으로 섬김과 전도에 헌신을 다해주었다. 수상자들은 부상으로 대상은 40만원,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상도 각10만원씩을 받았다.



▲ 총장실에서 콘테스트 시상식 후 모든 수상자가 함께 하였다.

▲ 행사에 참가한 학우들이 손바닥 책을 펼쳐 보이고 있다.

50 명의 학우,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밝히다

'책이 빛나는 밤에 '사색과 통찰로 이어져

도서관 주최 '책이 빛나는 밤에 '행사에 50명의 학우가 참여, 10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 밤을 꼬박 새우며 책을 읽고 발표와 토론 및 강연을 들었다.

교목실 박민수 목사가 '하나님의 책, 자연의 책' 주제로 막을 열었다. 박 목사는 독서가 인생에 끼친 영향과 중요성 등을 신앙과 경험적 관점으로 소통해 갔다. 학우들은 왜 책을 읽는가? 의 근원을 일깨웠다며 형식과 내용 모두에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이후부터는 본격 책 읽기다. 책을 선택하고 집중 독서하는 시간. 글자를 따라 시선과 책장 넘기는 소리가 깊은 밤의 정적을 흔들었다. '내, 읽, 책(내가 읽은 책 소개)의 시간, 학우들은 문장과 내용이 자신의 삶 안에 투영된 감동을 전했고 모두는 이를 공감과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한 학우는 발표에 참여해보니 힐링될 뿐만 아니라 자긍심을 갖게 해 줬다고 말했다. 졸음과 피로가 엄습해오는 새벽녘, 진행팀은 천로역정 독서퀴즈와 황찬범 학우의(사복 4)레크리에이션으로 독려를 거듭한 끝에 50명 전원이 '책이 빛나는 밤에'를 완주하였다.

이한나 (성서 1) 학우는 "비쁜 학업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이야기와 시선에 귀를 기울인 값진 시간이었다. 추억을 간직한 날로 보내서 기분 좋다"라고 말했다. 최지은 도서관 팀 장은 "이번 '책이 빛나는 밤에 '호응이 예상 외로 컸다며 미흡한 부분을 더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2 학기 성경졸업고사 65.4% 합격

1 학년 합격률 64.5% 로 선배에 밀리지 않아

2018 학년도 2 학기 성경졸업고사가 9 일 오전 10 시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174명이 신청하고 159명이 시험에 응했으며 이들 중 104명이 (65.4%) 합격했다. 재학 중마지막 시험이 되는 4 학년 학우 응시자 10명은 모두 합격했다.

학년별 합격 현황은 3 학년, 39 명이 응시 25 명 (64.1%) 이 합격, 2 학년은 46 명 응시, 28 명이 합격(60.9%) 했다. 1 학년은 응시생 62 명중 40 명이 거뜬하게 합격(64.5%) 하며 선배와 대등한 성경 실력을 드러냈다.

'CBS 미션 현장속으로 ' 우리 대학 촬영

"서울 시내 이렇게 귀한 대학이 ..." 성탄절 방영 예정



기독교 방송채널 'CBS 미션 현장 속으로 '팀이 28 일 우리대학을 방문, 취재하였다. 촬영팀은 아침 8 시 성서학과 1 학년 'BRC 수업' 과 12 시 진행된 '4 학년 주관예배' 그리고 '전도반'의 전도현장에 함께 참여했다. 강우정 총장과 최정권 목사(성서대학교회 담임)의 인터뷰도 곁들여 졌다.

취재를 마친 김상욱 PD는 "서울 시내에 이렇게 귀하고 올비른 대학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취재에 응한 모든 학우들이 밝고 뜨거웠다. 짧은 취재였지만 학교에 감동 받았다"며 취재 소감을 말했다.

한국성서대학 편은 성탄절인 25 일 본방송을 시작으로 20 분 분량으로 6 일간 재방될 예정이다.

선후배를 묶어준 연결고리 _ 사복인의 밤

사회복지학과 동문과 재학생 선후배가 함께한 사복인의 밤 행사가 8일 저녁 로고스 홀에서 개최되었다. 함께학회 진행으로 만찬과 사연읽기, 장기자랑 그리고 게임 순서 로 이어졌다.

라디오 컨셉에 맞춰 보내온 사연을 읽고 진행자 응원멘트 및 사연에 알맞는 음악과 상품, 실시간 문자메시지 소개 등이 큰 반향을 불러왔다, 장기자랑에서는 1 학년 발라 드 팀과 성서방위대 및 연극 등 6개 팀이 경합을 벌이며 객석에 웃음과 함성, 위트와 감동을 전파시켰다. 모두가 참여하는 신조어, 베스트 드레서 뽑기, 광고소리 맞추기, 눈치게임, 문자 소통하기 등 신세대 게임을 포진시켜 열기를 이어갔다.

2 학년 한 학우는 "선후배를 끈끈한 관계로 묶어준 연결고리와 같았고 내년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사복학과 선후배 95 명이 참여하였다.



▲ 연극 장기자랑에서 학우가 프로포즈 장면을 열연중이다.

'당신 곁에 반드시 내가 있다' 영보인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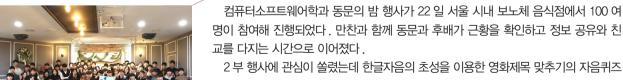
영유아보육학과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함께한 '영보인의 밤' 행사가 23일 저녁 7시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염예담 학우 외 10명이 열연을 보여준 연극 '무지개 물고 기'가 막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합창 등 9개 프로그램이 쉴 새 없이 무대에 올랐다. 그림책 각색의 연극. 우쿠렐레 연주. 춤. 합창. 수화. 무언극. 뮤지컬 등이 무 대에 올랐으며 웃음과 감동, 청춘의 끼와 발랄함이 아낌없이 분출되었다, 4 학년 졸업 예정자들은 마지막 순서에서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외로워도 당신 곁에 반드시 내가 있다"는 가사의 곡을 합창했다. 학교서 배우고 익힌 4년 일정을 마무리하며 교수님과 동기에게 감사를 전하는 내용이 감동을 주었다.

폐회 전 참석자 모두 일어나 손에 손잡고 로고스홀 벽을 따라 큰 원을 그리고 축복의 노래를 불렀다. 끈끈한 유대감으로 서로를 기도해 주고 응원하는 뜻 깊은 영보인의 밤 이었다.



▲ 멋진 율동을 선보이는 영보 학우들

한 울타리를 확인한 자리 _ 컴소학과 동문의 밤



에 학우들의 순발력이 돋보였다. 정해덕 교수가 진행한 노래이름 맞추기도 호응을 불러 왔다. 후배들이 혼신을 다해 열창을 보여준 장기자랑에도 큰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동문들은 "올해 제일 많이 참석했다. 후배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KBU 컴소 '의 한 울타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후배들은 "선배와 친분 쌓는 계기 였고 현장의 생생한 정보도 얻은 날이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행사를 다마치고 참석자들이 함께 하였다.

▲ 학우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김현광 교수 (왼쪽, 유정선 교수)

일립신학연구소 학술세미나

유정선 . 김현광 교수 발표

▲ 발표 1 유정선 교수

'이단의 실상과 교회의 대응'

1884년 개신교 상륙 이후, 최근까지 거짓가르침 등 이단 및 사이비성향의 단체와 언론은 116개에 달한다. 유교수는 이단의 공통점으로 체계적 신학교육 부재, 계시의 정통성 부각, 사회문화적 단체 위장 등을 들었다.

대처 방안으로는 본질로 돌아가는 기본 회복을 제시하였다. 또 전도전략에 앞서 기독교 복음과 구원 등 기초교리교육에서 성경공부로 연계된 교육강화, 장년주일학교의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성도들의 보호로 이어진다며 6 단계 교육과정도 소개했다.

▲ 발표 2 김현광 교수

'고린도전서 11:17~34 에 나타난 고린도교회의 성만찬 문제와 해결방안'

고린도교회의 문제점은 과거 성만찬이 애찬식과 함께 이루어지다보니 부유한 자들의 만찬과 같은 왜곡된 의식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다. 이는 계층간 위화감과 그리스도의 진정한 죽으심에 대한 신학적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분열적 행동의 파장까지 낳았다.

성만찬은 공동체 관계를 강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보여주어야 함으로 성만찬에 앞서 자신의 내면의 경건함을 유지하고 주변 관계도 잘 살펴야 한다. 교회 전체를 보는 안목, 낮은 자를 섬기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인식을 통해 사랑하고 섬기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수 논문「간호대학생의 웰다잉 ...」조민교 등 8명

「제 7 회 간호학술제」 7 편의 논문 및 포스터 발표 김조자 교수 . " 논문 전체의 수준 매우 높아져 "

「제 7 회 간호학술제」가 22 일 오후 3 시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논문 및 논문포스터 발표와 논문총평 시상식, 포스터 전시 순서로 이어졌다.

논문 4편이 발표되었는데 조민교 등 8명의 학우가 발표한 '간호대학생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 사전의료의향서의 지식 및 태도가 임종에 미치는 영향 (장인순 교수 지도)이 최우수 논문에 뽑혔다. 김정숙 교수가 지도한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도덕적 자아개념이 생명의료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신도희 등 8명 학우)이 우수 논문에 선정되었다.

이밖에 3 편의 논문 포스터 발표도 함께 이어졌다. 채민아 등 7 명의 학우(지도 장 인순 교수)의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간의 관계'가 최우수 논문포스터로 선정되어 기쁨을 누렸다.

2 학년 학우들은 3~4 명으로 팀을 이뤄'소중한 내아이, 당신은 건강하신가요?/산 모우울증'등 15 편의 보건교육 포스터를 제작했다. 출품작들은 로고스홀 입구에 전시됐는데 군인, 산모, 디스크, 갱년기, 당뇨, 식습관 등 다양한 주제를 함축적 표현으로 잘 담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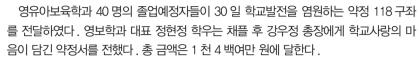
김조자 교수는 논문 총평을 통해 "논문 전체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으며 기준과 주제 및 방법론 등의 정리까지도 돋보였다"고 평했다. "사회적 이슈 접근과 영적안녕을 살펴보는 주제 선택도 신선했다"고 평하였다.



▲ 김민주 학우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영보졸업예정자 40명, 발전기금 118구좌

"후배와 학교 발전에 보탬 되도록"



정현정 대표는 "지난 4년간 전공과 신앙교육을 통해 크게 성장하도록 헌신과 사랑으로 이끌어 준 교수님과 학교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얼마 후 학교 문을 나서는데 후배와 학교 발전에 보탬 되도록 마음을 모으게 됐다"고 말하였다.

영보학과 졸업예정자들은 해마다 100%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김형미 학과장은 우리 졸업자들의 역량과 성품은 업계에 검증된 상황이라서 해마다 인력요청이 쇄도하 지만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후원 약정서를 강우정 총장에게 전달 하고 있는 정현정 학우

김조자 교수 , 작년에 이어

간호학 발전기금 1 천만 원 후원



▲ 김조자 교수

간호학과 김조자 초빙교수가 간호학 발전기금으로 1 천만 원을 후원하였다. 김조자교수는 "우리대학 간호학과 학우들의 질적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동문들이 일 하고 있는 해당의료기관의 피드백도 매우 우호적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제자들의 역량과 헌신을 다한 섬김의 자세를 바라보며 간호학과 학우들을 더 잘 길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 간호인에게 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상한 바 있다.

장순복 교수 (전 연세대 간호학 교수) 간호학 발전기금 1 천만 원



▲ 장순복 교수

캄보디아의 헤브론선교병원에서 International Program Director 로 활동중인 장순복 (전 연세대 간호학과 교수)교수가 우리대학에 1 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후원해 주었다.

장 교수는 "캄보디아 학우가 우리대학에서 수업 받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다. 이들의학내생활 편의와 장학금 등으로 지원해 준 학교의 노력과 복음전도자 양성 취지 자체에 깊이 공감하여 감사의 마음을 작은 기금으로 전하게 됐다"는 뜻을 전해왔다.

장 교수는 김조자 교수가 봉사한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에서 헌신하였고 현재 헤브론 선교병원 외에도 캄보디아 국립대학의 간호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직원 컬럼 김덕원 주임(전산지원팀)

몰려오는 검은 구름

사탄의 공격은 항상 정수리를 겨냥합니다. 단 일격으로 적을 무릎 꿇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포항의 한동대학교는 학교의 허락 없이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학내 학술동아리 '들꽃' 회원 석모 씨(27)에게 무기정학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것인가'였으며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을 소개하고 성매매를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학교는 이들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강연 내용이 성경말씀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학교의 설립이념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석씨가 폴리아모리 (Polyamory, 비독점적 다자연애)임도 밝혀졌습니다. 석 씨는 한동대를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여러 시민단체들이 벌 떼처럼 석씨를 돕고 있습니다.

장신대에서는 지난 5월, 6명의 학생들이 학교 채플 시간에 동성애자의 표현인 '무지개 깃발'을 몸에 두른 채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학교는 이 같은 '동성애 옹호 퍼포먼스'를 행한 학생들에게 정학 등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일이 여기서 봉합될지아니면 사회의 지지 세력들이 개입하여 더 커질지는 두고 보이야할 것입니다.

저는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대학과 신학대학이 사탄의 제 1 의 공격 목표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한동대와 장신대가 그 예입니다. 요즈음 차별금지법, 성 소수자 권리 주장, 페미니즘, 이슬람교세의 확장,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정치적 좌파들이 연대하여교묘한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젊은이들의 지성을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교회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계략이 검은 구름이 되어 몰려오는 것을 보는 것 습니다.

이번 호에 CBS 와의 인터뷰 내용 (12 페이지)을 실었습니다.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대학의 교육체계도와 우리의 좌표를 분명 히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어금니를 꽉 물고 십자가 의 군기를 굳게 잡아야 하겠습니다.

Radio Heaven

어린 시절 부모님이 운영하던 마트에서 일을 도우며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음악을 곧잘 따라 불렀다. 집에서도 TV보다는 라디오를 들으며 잠들 때가 더 많았다. 저녁 6시엔 배철수의 팝 음악을, 밤 10시엔 이문세와함께, 밤 12시는 신해철의 대중가요를 들었다. 중 고등시절은 좋은 음악의 테잎과 CD를 구매해 친구들과 돌려들으며 금세 친해지곤했다. 이때 친구와는 지금도 일 년에 몇 번씩 공연을함께 보러 다니기도한다.

현재 내가 하는 업무의 특성은 먼지 낀 장비들과 하루 종일 모니터를 바라보는 것이다. 때로는 여러 사람과 부딪히며 의견을 나눌 때도 많다. 그러다가 퇴근 후집에 도착하면 갑자기 내 몸이 방전 되는걸 느낀다. 마치 오래된 스마트폰처럼 피곤해 아무런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 곧바로 라디오를 켠다. 우리 강아지와 함께 앉아 그냥 음악만 듣는다. 그러면 바로 급속충전 되어오는 그 느낌을 받아나는 되살아난다.

최근 한 전설적인 영국 밴드의 전기를 다룬 영화가 흥행중이다. 영화의 극적 요소를 잘 갖췄다. 영상으로 신나게 음악을 들으며 하나의 팀이 만들어지고 곡이 완성되기까지 그들의 이야기가 재미있고 소중하다고 느꼈다. 이렇게 음악에 얽힌 뒷이야기를 찾다 보면 어느 새시간은 훌쩍 지나가고 만다. 이게 나의 소소한 행복이며 또 하나의 취미가 되고 있다.

요즘 나는 올 해 나온 음악 중에서 장필순의 8 집을 즐겨 듣는다. 여러 가지 다채로운 소리와 담담한 목소리 안에는 제주서 생활 중인 그녀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잔잔한 위로와 따뜻함으로 훈훈하다. 겨울이 깊어 간다.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 그동안 가고 싶은 공연을 보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내가 좋이했던 음악을 함께 듣는 자리 마련은 어떨까?



교수 컬럼 오은주 교수(기초교육원)



외래교수 컬럼 임상기 교수(의료사회복지론)

중간언어

제 2 외국어 습득 이론 중에 'Processability Theory' (Pienemann, 1998), 즉 "처리가능성 이론"이 있습니다. 제 2 외국어를 학습할 때 자신의 발달 단계에서 학습자가 지닌 지식의 준비도를 기준으로 제 2 외국어 지식을 재구조화한다는 이론입니다.

내용은 영어를 공부하는 학습자가 영어라는 언어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규칙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아는 영어의규칙을 활용하여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습자의 언어를 interlanguage, 즉 중간언어라고 합니다. 중간언어는 구조적으로 error 가 많으나 나름의 규칙성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2 외국어 습득과정은 목표언어와 다른 이 중간언어간 차이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목표언어에 맞추어 자신의 중간언어를 교정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학습자가 자신의 중간언어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을 멈추면 fossilization, 즉 화석화현상이 발생, 실수로 점철된 중간언어가 고착화되고 맙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 구원의 길과 하나님 이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 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 및 인식의 한계 안 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제 2 외국어 학습자가 나름의 규칙성과 시스템을 가진 중간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어학습자가 중간언어를 목표언어와 비교해 잘못된 부분은 교정하고 수정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하나님을 배우고 알려고 노력하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무릊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 25:29) 화석화된 신앙이 아닌, 진리에 거함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의 은혜가 날마다 풍족해지는 복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영광의 때를 살아가는 방법... '밀알정신'

목회자로서 성서대학교와 오랜 인연이 있었지만 최근 급격히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제 자식의 학업과 강의로 인연이 닿은 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 교훈이 '일립(一粒)'임을 안 것도 이쯤이었습니다. 교훈은 요한복음 12 장 24 절의 '밀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밀알'비유를 하시기 전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는 시점을 제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한 알의 밀'처럼 십자가 희생이 아니면 세상에 드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높은 장대 위에 달리셨을 때라야 모든 이들이 당신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당신 사랑의 마침표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고 가야 할 책무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밀알공동체로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게 합니다.

'왜 당신 영광의 때에 밀알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때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의 때를 가로막는 여건과 환경에 내가 옴짝달싹 못할 지경이어도 꺼내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내실구원의 십자가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환경과 여건을 핑계치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는 때, 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 어찌할 바를 몰라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그때가 지금입니다. 성서대학이라는 배움의 터전에서 그때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 은총에 감사해야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을 지피신 그분의 사랑을 돌아보며 삶의 자리에서 '영광' 드러내는 '한 알의 밀알'이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성서대학교는 어떤 대학인가요?

강우정 총장이 말하는 우리대학의 좌표

지난 11월 28일 'CBS 미션 현장 속으로' 방송팀이 우리 대학을 취재하고 돌아갔다. 강 우정 총장에게 물은 첫 질문은 "성서대학은 다른 신학대학과 뭐가 다른가요?"였다. 항상 듣는 질문이다. 이를 계기로 과연 우리대학은 어떤 대학인가를 총장의 답변을 통해 다시 되 새겨본다. 이날 취재진에게 제시한 교육체계도는 우리대학의 교육을 한 눈에 보여 주는 도 표이다.

매일 성경을 읽는 BRC. 채플 . 전도훈련 등 ... 그 이유는 ?

A. 우리 대학은 다른 신학대학과 다르다. 첫째 우리는 신학대학이 아 니다. 신학대학이 목회자 양성 대학이라면 우리는 복음전도자를 양성하 는 대학이다. 뭐가 다르냐?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고 전 1:17) 말씀은 목회자와 복음전도자를 명확히 구별한다. 목회자가 복 음전도자가 아닐 수 있고 또 복음전도자가 목회, 성직을 맡아야 하는 것 도 아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전도자를 지향한다.

Q. 한국성서대학교가 다른 신학대학교와는 다른 차별된 수업이 많다.

목회자에겐 교회라는 setting 과 목사 권위가 주어진다. 반면 복음전도 자는 보호 장치가 없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전 도자는 강한 신앙훈련과 신앙교육이 요구된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4 절과 16 절의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 같이 복음전도자는 숨을 수가 없다. 자신의 삶 자체가 빛이어야 한다. 우리는 학우들을 세상 의 빛으로 양육하고 있다. 그가 비취는 빛을 보고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다. 그 빚은 삶의 모습이다.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모습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해야 한다 (16 절).

Q. 대학시절인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행하는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A. 대학교육은 한 사람을 변화시킬 마지막 기회이다. '대학교 시절'이 인격 변화를 위해 시기상 늦긴 하나 교육기관의 틀을 갖기 때문에 가능하 다. 우리는 근본적 변화를 위해 애쓴다. 신앙훈련과 신앙교육 그리고 전 공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기본이다. 학우들의 생각과 행동에 말 씀이 푹 배어서 일체화되도록 하는 것이 임무다 . 우리 교육은 복음전도자 의 삶을 평생 지속시키기 위한 기초체력을 갖추는 일이라 생각해도 좋다.

Q. 한국성서대학교 통해 앞으로 이뤄갈 계획과 비전 . 기도제목은 ?

A. 우리대학은 자율개선대학 시대를 열며 새로운 Catch Phrase, 「하 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 사람도 흠모(欽慕)하는 대학, 을 내걸었다. 정부의 구조개혁 제 2 기가 끝나는 2021 년까지「Major League」진입 이 당면 목표이다. 「Major League」란 대학 평가의 모든 지표에서 상위 20% 안에 속하는 걸 말한다. 그러려면 5 개학과는 「명품학과」가 되어야 하고, 「100% 캠퍼스」를 만드는 것이다. 「100% 캠퍼스」란 학교 신앙 훈련 등 수치화되는 학우들의 참여도, 성취도, 국가시험 합격률, 취업률 등이 100%를 이뤄야 한다.

기도제목은 「캠퍼스복음화」이다. 학우들 중 15% 가 불신학우들이다. 우리 대학에 속한 불신 학우와 불신가족이 100% 구원 받기를 기도한다. 한반도의 복음화를 꿈꾸는 우리 공동체가 먼저 복음화 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성서대학교 교육체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 사람도 홈모(欽慕) 하는 대학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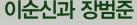
· 신앙훈련 : 모든 교수, 학생이 함께하는 훈련 · 4대주제 : 말씀, 기도, 전도, 봉사

* 방학과제 : 교회출석보고서, 성경읽기 묵상지, 독서보고서

조지건 목사 킬립



성서대학교회 담임



40 일 새벽 기도 후, 하루 종일 운전해 간 곳은 여수였습니다. 물이 맑고 아름답다고 해서 지어진 여수 바다는 유인도 51 개와 무인도 269 개 등 총 317 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여수를 가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미국교회를 떠날 때 "목사님, 제고향인데 너무 좋아요. 꼭 가보세요." 가는 목사가 서운할텐데 여수가 얼마나 좋으면 이런 말을 할까? 귀국하면 기볼 장소로 추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수라는 글자를 머리에 각인시킨 두 사람은 '이순신과 장범준'이었습니다. 낯선 땅에 사는 것이 몸에 익혀질 즈음에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는 미지의 여수를 그립게 만들었습니다. 이 그리움에 불 지른 건 '장범준'의 '여수 밤바다'였습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네게 들려주고파 전활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 아이어아 ... 아이어 ~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 (장범준의 여수 밤바다 中)

한밤중 위에서 내려다 본 여수는 가사대로 조명에 잠겨 있었습니다. 철지난 바다에 빈 공간을 메우는 건 화려한 조명들이었습니다. 민낯을 감춘 진한 화장같은 ... 이 조명들은 아침 햇살이 들면 그 초라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햇살이 드러난 바다 위로 이순신의 배들이 다녔을 것입니다.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로 임명된 1591 년에 약 60 척의 배가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해인 1592 년에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그해 5월, 이순신의 배는 첫 전투를 위해서 이 조명이 흐르는 물길을 지났을 것입니다. 그의 배들이 지난 물 위로 지금은 호텔 불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장범준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거북선이 아닌 장범준의 '여수 밤바다' 때문에 몰린 관광객들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하루 운전하고 하루 쉬고, 하루 운전하고 다시 올라온 상계동이 반갑습니다. 누구 하나 상계동의 이름으로 불러준 노래도 가수도 없고, 나라를 구한 이순신의 거북선이 없어도 나는 상계동이 좋습니다. 여수 음식보다 상계동 음식이 더 입에 맞습니다. 이젠 어디 가서 맛집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어느새 상계동이 내 맛집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학교 학식이 내 맛집이 될 것 같습니다. 여수 밤바다의 조명보다 은행사거리 조명이 더 화려하고 조명이 비친 바다 물보다 당현천 물가에 비쳐진 아파트 불빛이 더 정겹습니다. '이제 상계동 사람이 되려나보다..'

참, 상계동은 한천(중랑천) 윗쪽에 자리 잡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중계는 그 중간에, 하계는 하류 쪽에 자리 잡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깊이 있는 이름입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 ...



멀리 가는 물

도종환

어떤 강물이든 처음엔 맑은 마음 가벼운 걸음으로 산골짝을 나선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가는 물줄기는 그러나 세상 속을 지나면서 흐린 손으로 옆에 서는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미 더럽혀진 물이나 썩을 대로 썩은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 세상 그런 여러 물과 만나며 그만 거기 멈추어 버리는 물은 얼마나 많은가 제 몸도 버리고 마음도 삭은 채 길을 잃은 물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물을 보라 흐린 것들까지 흐리지 않게 만들어 데리고 가는 물을 보라 결국 다시 맑아지며 먼 길을 가지 않는가 때문은 많은 것들과 함께 섞여 흐르지만 본래의 제 심성을 다 이지러뜨리지 않으며 제 얼굴 제 마음을 잃지 않으며 멀리 가는 물이 있지 않은가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53



혹시, 맑은 마음 가벼운 걸음으로 나섰던 물이 흐린 물이나 썩은 물을 만나지는 않았는지, 그러다 그만 거기 멈추어 몸도 마음도 삭은 채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나는 주변을 살핀다. 그러나 아무리 흐린 구정물이라도 맑은 물 솟아나는 샘물만 있다면, 흐린 것들까지도 흐리지 않게 만들어 데리고 가는 물줄기만 있다면, 물은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오늘도 나는, 맑은 마음 가벼운 걸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본래의 얼굴과 마음을 되찾아주기 위해, 그대를 데리고 저 먼 길을 동행하려 한다.



▲ 감사를 찬양과 율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추수감사예배

지난 21 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아이들과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아이들은 각자의 집에서 과일과 채소를 가져왔는데 이 과일이 어디에서 왔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추수감사 예배에 임하였다. 교목실 이기훈 목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감사의 일상화가 중요하다. 말씀으로 이웃과 우리 주변 모두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아이들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찬양과 율동을 보이며 "하나님 맛있는 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였다.

이날 어린이들이 준비해 온 과일과 채소는 이웃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됐다. 복지 관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주변의 지역민과 이를 나누며 추수감사의 의미를 잘 살려주었다.

[기쁨반 정난경 교사]



▲ 어르신 수강생이 단풍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글이 재밌다'

지난 8일 성인문해교육 사업인 '한글이 재밌다 '의 어르신 수강생들이 복지관에서 마련한 백일장에 참여하였다. 예쁜 색지에 연필 스케치 후 색연필로 나들이에서 본 단풍을 주제와 연관시켜 재연했다. 방송 프로그램의 골든벨처럼 어르신들도 분홍색 모자를 거꾸로 쓰고 정답을 칠판에 들어 올리는 골든벨 울리기에 관심이 컸다. "서툰 글씨체와 문장이라 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라며 어린 소녀와 같이 손을 가지런히 턱에 괸 채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 추억을 되돌아보며 내재된 감성표현의 기회로 생각하고 작품 완성에 열심을 보여준 어르신들께 감사를 전한다

'한글이 재밌다'는 2018 년 서울시의 성인문해교육 공모에 선정돼 '골든벨', '백일장' 프로 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1팀 이주혼]



▲ 학부모들이 교육과 양육의 효과적 방법을 배우고 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

지난 14일 '존중받는 아이, 함께 크는 부모' 주제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진행하였다. 한국성서대학교 최성진 교수는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자녀존중 양육방법과 유형별 양육사례, 아이와 놀이하는 방법 등을 강의하여 많은 공감을 일으켰다. 최 교수는 이밖에도 부모가 느끼는 고민과 교육적인 해결방법까지 접근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부모들이 교육과 양육을 훼손하지 않고 지도하는 것에 어려움 등을 토로하였다. 존중과 배려심이 더해질 때 성장기 아이들 내면이 더욱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것에 공감을 이뤘다.

학부모들은 "시례 중심의 해결방법과 양육 스트레스를 나누는 게 좋았다. 적절한 대안 찾기 등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 됐다"며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함을 나타냈다.

[초롱반 김혜진 교사]



▲ 성도들이 식당에서 올겨울 먹거리인 김장을 담고 있다.

선교 아웃리치

지난 13 일 \sim 15 일까지 '박헌승 목사(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초청 부흥회 '를 가졌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제로 새벽과 저녁 집회가 진행되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치유하며 승리의 깃발이 되고, 평강이시며 함께 계시는 여호와를 알아가고 만나는 값진 은혜의 시간이 됐다.

이와 함께 교회 김장(16~17일)을 담갔다. 담임목사와 남녀전도회가 참여해 일을 잘 감당해 주어 잘 마칠 수 있었다. 김장 후 보쌈으로 힘써 참여한 성도들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선교학교 수료자 32명이 23일~24일까지 국내선교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신안 증도의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증동리교회, 대초리교회, 영광염산교회, 영광양월교회를 방문, 순교자들의 높은 신앙을 생각하며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서욱목사]



▲ 유이와 교사들이 소방안전에 대하여 교육을 배우고 있다.



▲ 엄마와 가족이 오디음악극에서 신체놀이존을 체험중이다.



▲ 그림에 나타난 아이의 속마음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학부모들



▲ 폐품을 이용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P.P(PET-PUT) 블록'.



▲ 늦가을 숲의 생태계 변화를 확인하며 교감 중인 유이들.

소방교육

지난 15일 상계백병원 방재실은 유아와 교사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소화기 안전점 검을 실시하였다. 실제 사용 중인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 다양한 소화기의 역할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화기를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고, 아이들도 직접 소화기를 다뤄보는 경험을 가졌다. 또한 우리 주변의 소방시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지하철과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대처하는 요령도 배울 수 있었다.

교육 후 아이들은 자신의 몸을 안전히 보호하고 대피 요령 따라 안전 장소로 신속히 피하는 소방대피훈련도 함께 이루어졌다. 상계백병원 방재실에서는 월 1 회 이상 소방시설점검 및 교직원과 아동 대상으로 분기별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푸른반 이예은 교사]

'가족과 함께 뚜비뚜바'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0일 관내 영유아 가족 400 여명이 참여하는 '가족과함께 뚜비뚜바'를 진행하였다.

행사는 오디음악극 '우리엄마'와 가족이 참여해보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오디음악극 우리엄마는 음악과 책읽기의 즐거움에서 배움의 가치를 키우고 악기체험으로 음악적 재능과 창의성까지 키워주기는 목적을 담았다.

체험활동은 전통놀이존, 신체놀이존, 체험존, 포토존 등 총 21 개의 놀이에서 즐기며 탐색하는 프로그램이다. 각각의 특징에 맞춰 신체발달과 지적 경험을 놀이와 접목시켜 체험시켰는데 모든 프로그램의 만족도 자체가 높았다. 특히 부모와 동행이어서 가족 간 친밀감과 정서적 관계 증진 및 추억을 쌓게 한 시간이 되었다. [양육지원팀장 장수진]

'그림으로 보는 우리 아이 속마음'

지난 13일(주)푸드머스 소속강사를 초빙해 '그림으로 알아보는 우리 아이 속마음 '주 제의 부모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은 영유아의 그림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HTP 검사와 HTP로 아이의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들로 구성된다. 실제적으로 아이의 그림으로 마음을 아는 방법 배우기였다. 교육에는 학부모 15명이 큰 관심을 갖고 임하였다. 그림한 조각이 전하는 아이의 심정과 표현하려는 욕구의 일부분을 패턴으로 유추해 갔다. 강사는 부모와 자녀가 교감하는 자체가 긍정적 관계형성의 시작이라고 말해주었다.

학부모들은 "교육 주제가 흥미로웠고 아이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 되었다."라며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앞으로도 아이 양육에 도움 될 다양한 교육을 계획할 예정이다.

[늘푸른반 우보람 교사]

교재교구 공모전 대상 수상

2018 년 노원구청과 노원구육이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한 '폐품의 위대한 탄생' 주제의 교 재교구 공모전에서 우리 어린이집 출품작이 영예의 대상작에 뽑혔다. 이번 공모전은 관내 50 개 보육기관 교사들이 95 점을 출품할 만큼 관심을 일으켰다.

늘사랑어린이집은 주제에 맞춰 자주 사용되는 페트병으로 병과 뚜껑을 이용한 구성물 만들기를 계획하였다. 고심을 거듭한 끝에 'P.P(PET-PUT) 블록'이 탄생되었는데 주제와 교육효과 모두를 충족시켰다며 대상(구청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쉬운 제작과 내구성 및 질감까지도 돋보였다는 심사평이 있었다. 수상 소식에 학부모들도 축하와 함께 늘사랑에 자긍심을 갖게 해 줬다고 말했다. [즐거운반 변윤선 교사]

알록달록 가을 숲으로

지난 2 일 만 $2\sim5$ 세 영 · 유이들이 난지도에 마련된 숲 체험장을 다녀왔다. 숲 생태 교육 연수를 다녀온 선생님의 지도로 숲에 있는 자연물 탐색과 놀이 및 질문의 시간 등을 가졌다.

'나무는 무얼 먹고 자랄까?' 와 '열매가 된대요'로 숲의 주인인 나무의 일상에 맞춰 설명을 이어갔다. 땅 속에 뻗어있는 나무뿌리에서 나무가 자라는 과정 탐색의 '나무는 어떻게 자랄까?'로 호기심을 키워 주었다. 마로니에 껍질로 '무당벌레 만들기' 등 다양한 숲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밖에 다양한 조형물과 기구를 활용하고 낙엽을 공중에 던져보며 가을 숲의 변화를 오감으로 체험했다.

영 · 유아들은 숲에서 보고 배운 것에 즐거워하며 계절의 변화를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달님반 교사 백예나]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18년 10월 21일부터 2018년 11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내기부

■ 국외기부 PayPal: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_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384 048 3592 _ Routing No.: 121 000 248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17 Fax, 070,4275,0161 ■ 접수처

■ 기부금종류 장학기부금: 학업곤란 및 생계곤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으로 지원되는 생활 장학 기금

운영기부금 : 학교 발전을 위해 시급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쓰여지는 기금

역명기부금: 중계역(한국성서대역) 3년간(최장 6년) 계약되어 있는 금액 납부를 위한 기금

건축기부금 : 신축 및 학생들이 편하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적의 면학 환경을 조성하는 기금

발전기부금: 각 학과별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기금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故 강덕희 36,000달러(운영)

김조자(간호학 교수) 1.000만원(간호발전)

> 장순복 1,000만원(간호발전)

하나금융나눔재단 1,000만원(장학)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680만원(운영)

오은성

강우정.강진(총장)

경성교회(박종걸 목사)

예전뷔페(김은식 대표)

동서환경(주) (김태봉 대표)

114만원(운영) 1,000달러(운영)

315만원(운영)

300만원(운영)

200만원(건축)

이례장학(민용기 원장) 10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강춘자 구본철 권예은 김보희 1구좌

김은석 김정모 김종환 류수진

박수진 박윤복 박은지 박형택

백연주 송명훈 이병현 이상필

이용철 이윤성 이은영 이창호

이철승 정영용

2구좌 국소영 3구좌 최광희

5구좌 남영란 남희경 안선례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박주양

2구좌 김남준 이상일 장지순

10구좌 조현진 조혜경

성서대한교회

1구좌 오경모

일반

박지성 안애숙 유화실 이민우 1구좌

83.3구좌 장순복 단체 및 기관

5구좌 장자교회 20구좌 무명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이아람무 명

1만원 강나경 강명희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영규 강영주 강은아 강재현 강정민 강정애 강주옥 강춘자 강현미 고성호 고재민

고정균 곽미화 구본길 구본철 구세경 권명순 권슬기 권예은 권유철 권정인 권 준 권지연 권희조 금동옥 김가영 김경수

김경수 김경혜 김나래 김도훈 김동현 김명희 김무엘 김미숙 김민겸 김민정 김민호 김믿음 김병렬 김보민 김보희 김선식

김선태 김성애 김세현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유미 김유진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은희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정례 김정모 김지선 김진영 김진하 김차욱 김춘덕 김태용 김필녀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선 김혜영 김화태 김효래 나선영 나혜수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 철 노한나 류수진 류요한 류 정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수란 문영주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경옥 박명우 박문홍 박수진 박순임 박이론 박영근 박영자 박윤복

박은지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철교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배민정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은진 백향목 변지윤 서미희

성한나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손혜진 손화진 송명훈 송민규 송석배 송순덕 송영자 송유지 송향숙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은혜 신종수 신태양 신혜영 신호영 신화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오병휘 오세천 오은희 오인록 오찬미 우승연 원윤희 유미정 유소담 유양숙 유영진 유정례 유주홍 유지영 유지혜 윤솔이 윤영원 윤예서 윤정숙 윤지준 윤혜자 이경선 이광석 이근중 이누리 이도훈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화

서유미 서정민 서지혜 서초롱

서 현 서희영 성순애 성은숙

이병주 이병현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정 이수진 이신재 이아름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주 이은실 이은지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주희 이진경 이진리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춘석 이학준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윤 이화연 이환기 이희윤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임창열 장두성 장세진 장순호 장윤국 장익봉 전명자 전미영 전병준 전상호 전이름 전이영 전예지 전한나 정금숙 정다운 정다운 정선도 정성희 정연오 정영교 정영용 정옥순 정은영 정인철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기부자 5	벼다						
기구시							
	조경애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11만원	유선미	20만원	김성경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이가은 이노선 이대영 이대한
	조용희 조은경 조은별 조은화	50만원	신호정		안정선 임지영 정해덕 조윤경		이상록 이정철 이지선 이지수
	조인순 조태환 주민자 주성현	100만원	이례장학		최영태		이진호 임숙정 정희선 홍동숙
	주영덕 지영환 진병원 차현정			25만원	최선희	2만원	권정화 김경래 김다혜 김민산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민영	재학생 및	가족	300달러	강일로		김배열 김봉춘 김애숙 김영희
	최서희 최선경 최수연 최승주	1만원	강애솔 강정희 권순길 김명선	40만원	홍설자		김을열 김인영 김정숙 김종아
	최승진 최아란 최종운 최진희		김민아 김석정 김성자 김윤옥	315만원	강우정.강 진		김주혜 김지윤 김혜정 김희자
	최혜림 탁국현 탁명화 하수현		문성남 박기영 박대종 박미영	1,000만원	김조자		남윤주 류 강 박명자 박용숙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박재숙 방지연 백해송 서이현				박진석 박천순 변경선 성윤선
	한이름 한영신 한원창 한정은		송기운 신연정 신영옥 염인형	부설기관			손진희 신양금 심애경 양순정
	허영숙 허정운 홍금주 홍선호		오미선 윤운섭 윤효심 이금란		권은지 김령오 김옥준 김은지		오경이 오윤아 용정자 이노선
	홍성대 홍애진 홍자영 홍정심		이동기 이원혁 이혜진 임동화		김태연 문유나 박제하 서애진		이대우 이선호 이영희 이임자
	황승호 설에스더 신에스더		정창금 최상모 홍경희		오윤아 윤보배 임재택 차도영		이정숙 이정임 이종옥 장근문
1만5천원		2만원	공진희 김복녀 김현숙 박혜숙		최미정 최선영 허성보		장홍림 전하준 전해성 정나영
2만원	고난홍 곽연희 구연민 국소영	202	서성식 안혜경 엄미자 오옥경	2마위	김은비 전안나 홍옥주		조건희 조병하 조영희 조용수
200	권오경 김경희 김기옥 김다솔		이영림 최혜진 허 윤홍은선		권정이 권효진 김미화 김선화		조준희 조현진 지주연 최명순
		OLIOI		3건전			
	김동길 김두환 김명희 김미나	3만원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 박재완		김은솔 김주은 김현애 김혜진	OLIOI	홍기순 황서린
	김미숙 김미향 김민정 김샛별		배정숙 서재형 이종권 조대의		박미애 박선경 변송이 변윤영		김봉춘 김판근 김화영
	김성훈 김순녀 김승용 김연정		채형찬		서혜란 송애솔 양미현 위소진	4만원	권정숙 김나미 김덕현 김문응
	김연주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5만원	김형태 이지은 이한빈 허용철		유정현 이다솜 이선정 이효빈		김원자 김윤선 김인자 김태연
	김원미 김은하 김일한 김재원	10만원	박연자 이상학		임보나 임지혜 장나혜 장수진		김혜진 박선하 박인숙 송형기
	김정훈 김중재 김지원 김지은				장지영 정난경 정미옥 정혜란		신인옥 안영숙 양천식 오경모
	김지혜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교직원 및			조은채 최은혜 최하나 탁지혜		유상호 윤복순 이관영 이길우
	박대우 박재송 배혜인 백연옥	1만원	강신애 고아라 구동 식 구만길		한민희		이승림 임성일 장인순 정갑순
	성낙표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권관희 김미영 김병수 김봉재	5만원	강진아 서영숙 여미희 이지연		정명수 정선희 조성민 조정선
	송만호 송영희 송인성 송정화		김상일 김선준 김 성 김세미		전은재		최순남 최영태
	신정섭 신정화 오정순 오채엽		김세진 김은실 김춘하 김형중	10만원	이인경 정나나 조지선 지주나	5만원	김동선 박혜영 이명순
	왕용분 유순희 윤광길 이경희		김혜성 김 희 류은미 문지예	15만원	김신덕 김화영 안미희 오동준	6만원	김영헌 양태환 이숙영 이유화
	이구영 이기주 이상복 이선영		민경은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20만원	김승옥		이은실 임현필 한성실 한진호
	이선재 이이름 이영애 이유미		박주양 서광철 안수자 양승원	25만원	신영자	8만원	권태완 김향순 박온유
	이유진 이은애 이의선 이정목		윤명섭 이경희 이기훈 이문자	30만원	차 건	10만원	강유진 길용희 김웅기 김일선
	이종임 이충희 임은희 장민호		이승영 이종우 이지희 이호섭				김현광 박세건 유형창 조혜경
	장재원 장정인 전택복 정성종		장경순 장원경 전광선 전귀선	권선제일교	7호	22만원	최정권
	정주영 정지용 조성진 진태임		전영호 정보미 정은상 조아라	1만원	이상규	680만원	성서대학교회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조영채 조형섭 최미영 최민주	5만원	권선제일교회		3 1 1 1 1
	하지혜 한민수 황형록		최은비 하희수 허윤민			수원교회	
	황보혜영		요시다고조	동광교회		1만원	강동형 기병문 김미영 김상오
3만원	공복순 권삼희 권서영 권오규	2만원	고진주 권경애 김남준 김동준		김복례 김영란 배 윤.김현진	166	김일섭 홍성호
002	권정완 김가희 김동교 김동원	202	김인화 김장호 문행자 박성범	166	하미희	2만원	이승종
	김민지 김보라 김세련 김지애		박준기 박태용 손정수 안 호	3만원	이은지	200	VI00
	남세영 남지원 문순일 문지수		오철송 유성현 이상일 임현필	32.2	VI E XI	이레교회	
				поката			소미리 이레이
	문진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장지순 정영은 진달래 최지연	밀알교회	니는지	1만원	손미희 이채은
	박민송 반세호 방애자 서명주	OFICI	한상만 한정숙	1만원	서효정	TITITION	
	설보경 송성은 신은숙 양연선	3만원	김은영 박민수 박재진 방진희			장자교회	-1-14
	양혜경 유예진 이남희 이다운		신재윤 유다운 유수연 이소연			2만원	권정숙
	이성은 이안나 이예람 이예은		임경미 정순애 추연진	1만원	이광열 이반석 장옥경	5만원	장자교회
	이예지 이은혜 이재국 이주연		한요게벳	2만원	장선규		
	이혜민 임소담 임유미 장영훈	5만원	권순범 김성호 김현동 박현희	3만원	이훈호 장석원	주향교회	
	전병민 전영이 전지혜 정선희		신금주 안미란 유미나 장정순			1만원	유병우
	정슬기 정윤주 조신애 조은아		전영천 최사랑	삼일성서고	Z회	2만원	정우진
	주혜원 진성지 최광희 최소린	6만원	양희정 이성아 임환석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진재호	3만원	주향교회
	한보미 홍석화 홍예지 황미란	7만원	이광삼		한금순		
	황영숙 황예린	9만원	고성산 권경만			중앙성서교	7호
4만원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이윤정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곽규상 김도경	서문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재혁 김정희
5만원	강동란 경민정 김세영 김종남		김미정 김승호 김웅기 김정원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임용주		이승학 최경자 최영란 최영숙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김정원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1만5천원	정찬수	2만원	김옥자 신영옥 오근수 이수병
	배성준 송복순 송현미 양원석		김형미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20만원	서문교회		이준구.안춘자
	이계훈 이길순 이부호 이지은		유정선 이소정 장인순 정순례			3만원	김덕규
	임연식 전은진 조유진 천유림		정휘진 조현진 조혜경 진경선	석계제일교	7호	222	원로 · 은퇴장로회
	하승훈 허성희 허정원 홍현숙		최육열 최은희 한영수 현우석	1만원	채용문	5만원	김종구 한금례
6만원	서성숙 이은영 정동주	11만원	김중완 이복남 최지은	2만원	오활란	JC 2	중앙성서교회 권사회
		11민권 12만원	이강동	2년전	<u> </u> 그글린		
8만원	권혁태			M Dellete	751	100101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0만원	강경옥 김장교 김종우 김진만	13만원	강규성 김정숙 신지수 이은광	성서대학교	[일	10만원	무 명 이혜선 현희철
.022			하지금	10101	가격해 기태그 기리러 바이를		7107 10171
.022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장명헌 최대만	15만원	한진호 김량헌 김은호 김희수	1만원	강경혜 김택근 김혜련 박영한 안숙진 오경모 오경원 유은주	100101	김윤규.신인자 황인돈.김순자

기부자 명단										
24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김명호 김미라 김배숙 김범설 김범준 김석균 김승애 김양권	23만5천원 30만원	년 무 명 박순정	7만8천원 10만원	도서관 (주)아이앤유니/(주)이레E&C			
퇴계원제일교회			김영주 김유벽 김유진 김은경	1,000달러			이레디자인/가성교회/구리중			
1만원	유재란 차형미		김인호 김진영 김천수 김효정	114만원	예전뷔페		앙교회/대광교회/두암산업(주)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류계현 류찬성 문해영 박미숙	1,000만원	· 장순복		/상록교회/상일교회/오감발달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36천달러	강덕희		연구소			
평원교회			소아름 송수용 안애숙 오경희			14만2천원	· 우리회			
1만원	성경아		오미라 오미선 오현숙 원영훈	단체 및 기관		20만원	(주)소원기건/도봉성산교회/			
			유해연 유화실 윤주원 윤주하	1만원	(주)대우노즐/(주)삼현미디어/		새중앙교회/생명샘교회(성주)			
평화교회			이관헌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김포예수사랑교회/꿈꾸는교	22만5천원	· 청밀			
1만원	김광석 정순이		이현수 이혜숙 이호정 장명웅		회/동두천성실교회/맘키즈푸	30만원	노아인터내셔날/다리놓는교			
			장지화 정지수 조동빈 조목장		드/이음기업		회/한민제일교회			
풍암교회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조준성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주)엘	40만원	구리성광교회/서부중앙교회			
1만원	유금례 윤 은 정		조준우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리트코리아/금곡광염교회/문	200만원	동서환경(주)			
			최원실 최은실 최인숙 최점숙		양교회/성복중앙교회/열방교	300만원	경성교회			
함평대동교회			하경국 한민희 한상은 허유진		회/행복한교회	1,000만원	! 하나금융나눔재단			
1만원	김희경		허창금 황영수 위샐러듀	3만원	새샘교회/섬기는교회/신작교					
		2만원	김윤숙 김종환 서병준 이일신		회/우리교회/의정부좋은나무					
효성교회	0-114 01 7 0 41 1 7 7 4		장병길 정주아 정형채 최국열		교회/태광성서교회/푸른동산					
1만원	오혜숙 원 구 유순남 진경숙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40101	교회					
оптог	진은숙 진효숙 홍성일	OFFO	김에스더	4만원	주님의교회	A 741 /00	240 40 04 - 0040 44 00)			
2만원	김양례	3만원	김미수 장문석	5만원	다드림교회/삼일교회/수색감	소계 (20	018.10.21~2018.11.20)			
일 반		4만3천원 5만원	박은영		리교회/천성교회/충은교회/하	L-31 (00	112,055,597			
일 만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영욱 권창석	0인편	강한성 석지현 이미경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늘누림교회/행전교회/향기나 무	∓ ⁄41 (20	018.03.01~2018.11.20)			
1건건	김균태 김기수 김대성 김동우	10만원	류동원 박경혜	50달러	구 우리침례교회		672,746,328			
		1022	TOE 709	50월니	구니 <u>미네파</u> 퍼					



